

## 歐羅巴 獸醫學界의 動向과 韓國

### 獸醫學界의 進路

獸醫學博士

金 善 換

歐羅巴는 名實共存 獸醫學의 發祥地인 同時に 古今을 莫論하고 獸醫學界의 權威와 傳統을 誇示하는 地域社會에는 틀림이 없다. 그것은 그들이 处해 있는 國家나 社會의 一員으로써 的學의 權威는勿論 單位地域社會에 있어서의 經濟的 指導者로써 处遇받는 것들이 그것을 證明하고도 남음이 있다.

獸醫師가 失職을 하고 貧困과 處遇에 허덕이는 地域社會는 後進國家와 非文明國이며 自主性이 缺如된 被援助國家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端的으로 말해서 그 國家의 貧富를 알기 쉽게 찾어 내는 方法은 그 나라 獸醫師의 収入과 處遇를 보면 判斷이 내려 지는 채 獸醫師가 다른 職業出身보다 越等하게 収入이 높고 坦當以上の 處遇를 받는 나라는 富國이요 그反對는 貧國이라는 結論이 나오는데 이것은 決코 過誇且 評價는 아니다.

歐羅巴의 獸醫學界는 第一次 世界大戰以後부터 復興期에 접어 들었는데 第二次 世界大戰以後는 全盛期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만큼 現在 그들은 正當以上の 處遇와 經濟的 収入을 올리고 있다.

特司 社會保障制度가 發達한 國家에서는 獸醫師의 經濟的 収入이 醫師나 歯醫師 및 藥劑師들 보다 越等하다는 것이 既定事實인데 後進國家에서는 이와 같은 現狀을 찾어 볼수 없는 것이 事實이다.

여기서 韓國의 正常의 社會現象을 이끌여고 한다면 獸醫師의 處遇와 的學의 權威가 서도록 해야 하겠고 한편 醫師들이 豪富하는 惡性이 根絕되어야 할 것이라는 結論에 到達하는데 只今 形便으로는 遲遠한 일이며 이것을期待하기란 童話를 듣는것 보다 至難한 것 같다. 多幸히 革命政府에서는 獸醫師의 處遇를 多少間向上하였다고는 보나 아직 正當한待遇를 받고 있다고 할수는 없다.勿論 韓國社會全般에 걸친 課題이기 때문에 一朝一夕에 是正의기를 希求할수는 없으나 問題는 家畜의 頭數가 얼마나 되며 그 生產量이 國民生產高에 미치는 比重이 他農產物보다 莫重하게 되는 때에나 바랄수 있는 것이다.

筆者는 北歐의 丹捫, 諾威, 瑞典國等에서 獸醫學을 배울 機會를 가졌다. 其後 塗地利國 維納에서 工夫를 마치고 獨逸, 佛蘭西, 和蘭, 白義耳國의 獸醫學界도 視察할 機會도 갖게 되었다.

北歐에서는 丹捫의 首都 København에 있는 王立獸醫科 및 農科大學校에서 Bendixen教授와 Rasbech & Sjolte教授에게 庄科學과 人工受精 및 臨床獸醫學을 배웠다. 丹捫의 王立農大는 1858年에 創設된 것인데 筆者が 當大學을 떠나 塗地利에 갈때에 100周年記念祭를 盛大히 舉行한는 記憶이 있는 만큼相當히 歷史깊은 大學中의 하나이다. 그러나 獸醫學校는 1780年頃에 設立되었으니까 約 80年前에 이미 王立學校로써 發足하였는데 1858年に 統合되어 王立獸醫科 및 農科大學이 되었으며 1958年 100周年記念과 더부터 大學校가 된것이다. 그러니까 丹捫 獸醫學의 始初는 1780年代니까 只今으로부터 約 180餘年前의 일이다. 그에 反하여 諾威國 獸醫科大學이 最近에 이르러서 1934年頃에 設立되었으며 瑞典王立獸醫科大學은 19世紀末葉에 設立되었다. 그럼으로 當初에는 獸醫師養成은 唯獨 丹捫에서만 하였기 때문에 只今도 諾威나 瑞典國의 年老한 獸醫師는 大概가 丹捫王立獸醫大出身이殆半이다. 德分에 諾威 國立獸醫科大學에 갔을때는 學長以下 多大數의 教授가 丹捫王立獸醫大出身이었고 主要한 試驗所나 研究所 檢疫所의 責任者나 衛生擔當官들 까지도 丹捫王立獸醫大出身同窓이었기 때문에 가는곳마다相當히 優待를 받은 記憶이 아직도 생생하다.

北歐三個國의 獸醫學課程은 丹捫과 諾威兩國의 學制가 같은데 五年半에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 六年制인 것은 것이 常例이며 瑞典國이 이보다 높은데 六年半에서 七年이 걸인다. 大體로 보아서 北歐에서는 醫學과 獸醫學의 學制가 다른 歐羅巴諸國보다 높다. 例를 들면 北歐에서는 醫學이 八年制인데 比하여 獨逸系統에서는 五年에서 五年半이면 課程이 끝나며 獸醫學은 四年半에서 五年이면 끝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獨逸系統에서는 學年中間에 二次에 國家考試가 있끼 때문에 그

國家考試에 합격하지 안코는 다음 학기에 登錄할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實相 四年半에 課程을 끝내고 第三國家考試를準備하는例는 秀才에 屬하며 普通五年에서 六年은 걸리는 것이다.

여기서 獨逸系統의 獸醫系統에서 實施되는 國家考試를 參考삼아 紹介하기로 한다. 獸醫師 國家考試는 政府에서 學年마다 學界의 元老로써 考試委員에 委嘱된다. 教授는 勿論 國家考試委員이 될수는 없다. 그러나 教授는 國家考試委員과 함께 受驗生들에게 質問을 한다든지(特히 臨床試驗)立會할수 있으며 及第와 落第를 審查하는데 助言할수가 있고 副屬하는 責任을 지고 있다. 第一과 第二國家考試는 年二回 團體로 國家考試를 實施하고 第三國家考試는 普通二人以上이 政府에 考試申請을 하면 何時라도 受驗할수가 있다는 것이 特徵이다. 그러므로 一旦 學課를 마치고는 半年이고 一年이고 準備를 하다가 自信이 있을때 마지막 國家考試를 치게 마련이다. 學年은 勿論 國家考試라는 커다란 3個의 試驗外에 學期마다 試驗이라는 關門을 거쳐서 學點은 얻고 있다. 實相 그들은 高等學校를 卒業할때 大學生資格考試라는 關門으로부터 獸醫師의 免許狀을 손에 절때까지 數十次의 試驗을 치루는 셈이 된다.

歐羅巴에서 通用되는 獨逸系 學制는大概 獨逸, 瑞西, 奥地利 三個國인데 和蘭도 이에 가깝다. 그리고 大學의 課程을 마쳤다는 것은 何等의 價値가 없는 것이며 全國家考試를 通過하여 Diplom을 타야만 意義가 있끼 때문에 이 Diplom을 타는데는相當한 努力와 時間을 處費해야만 한다.

第一國家考試는 第五學期를 修了하여 所定의 學點을 取得한 者들에게 基礎科學에 對한 考試를 치르는 것이며 第二國家試驗은 第一國家考試에 合格한 者가 第六學期로부터 第九學期의 全課程을 履修하여 所定의 學點을 取得한 者에게 臨床을 除外한 專攻科目的一部를 考試하는 것이다. 第三國家考試는 第二國家試驗에 合格한 者로써相當期間 大學이나 研究期間 및 開業獸醫師 밀에서 臨床實習을 한후 國家에 對하여 自意로 第三國家試驗을 申請할수 있으며 大體로 臨床을 中心으로 實施되고 있으며 이것만 通過되어 合格되면 Diplom을 獲得하여 就職을 하거나 開業을 할수가 있다.

獨逸系統의 國家考試는 다음과 같은 科目이 課해지고 있다.

#### 第一國家考試 科目:

1. 獸醫物理學
2. 動物學
3. 獸醫植物學

4. 獸醫化學
5. 組織學
6. 發生學
7. 解剖學
8. 生理學

#### 第二國家考試 科目:

1. 病理學
2. 病理解剖學
3. 寄生蟲學
4. 寄生蟲病學
5. 藥理學
6. 藥物中毒學
7. 細菌學
8. 血清學
9. 動物衛生學
10. 牛乳衛生 및 食品衛生學
11. 食肉衛生學
12. 特別病理治療學
13. 内科學
14. 反芻動物疾病學

#### 第三國家考試 科目:

1. 畜產學 및 管理衛生
2. 外科學
3. 眼科學
4. 蹄疾病學
5. 產科學
6. 產科疾病學
7. 傳染病學
8. 獸醫學史
9. 獸醫諺法規

本簡을 通하여 學科課程과 學點取得에 關해서도 詳細히 紹介하면 하지만 紙面에 制約이 있는 故로 省略하기로 한다. 다만 그들이 習得하는 課程의 程度는 德國에서 大學院코스를 마치는 經路가 되여야 그곳서 Diplom을 탈수가 있는 것으로 안다.大概 獨逸系統의 大學에는 大學院制度가 없고 Diplom을 타는데 까지의 學制가 높고 一旦 Diplom을 타면 곧 Academiae라는 教授團으로 構成된 學士院에서 學位審查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大學院코스 같은 것은 없으나 自己의 才量과 努力에 따라서 或은 秀才型에서는 一年에도 學位를 받으며 或者는 三年 또는 五年도 걸리는 것이다.

北歐에서 學位를 取得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다.丁抹만 하드라도 一百年 以上的 歷史를 지닌 王立獸醫大

에서 歷史以來 八名인가 學位를 탓는데 그것도 1920年代에 한창 世界的으로 權威를 誇示하던 名教授 六名에게 政府에서 最初로 授與하였는데 其中에는 Bruceuois 即 流產菌을 發見한 B. Bang教授도 包含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醫學者이기도 하다. 只今 남아 있는 분은 2~3名이 生存하여 있는데 Christensen教授가 外科専門을 하시고 血清研究所 所長인 Börum이 있다. 그러므로 丁抹內에 學位를 所有하고 있는 분은 極少數이며 될수 있으면 안 주려고 하는 内幕이 있다. 그러므로有名한 自髮教授들이나 残存한 壯年教授들도 아직 學位가 없다. 諸威도 마찬가지다. 瑞典은 比較的 이와 같은 學位禁授令은若干 緩和되어서 教授級에서는 大概 所有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獨逸系統으로 내려 오면 누구든지 有資格者(第三國家考試에 合格하고 Diploma를 所有한者)로써 學究의 認定될만 하고 새로 운 領域을 開拓한 優秀한 論文이면 派閥이나 親面의 差 없이 通過시켜주며 또한 口頭試驗만 合格되면 學位를 준다. 그러므로 大學의 Assistant 까지라도 學位가 없이는 資格이 없다.大概 論文審查委員은 于先 3名 學位所有教授가 있어야만 複成되기 때문에 이것이 北歐에서는 難點의 하나이다.

그럼 여기서 學位를 訂立해 주고자 하는 獨逸系大學보다 學位를 안 줄려고 애쓰는 北歐各國大學을 比較하면 北歐系統이 學制가 높은데 比해서 醫學界는 沈退되어 있고 獨逸系의 學徒들은 보다 學究에 热中하여 學位를 얻고자 努力하기 때문에相當한 研究發表가 있고 文獻이 쓰다지 나오는데 比하면 北歐系學徒들은 기껏 Diplom만 얻으면 곧장 開業이나 하려는 것 외는 보다 學究의 研究를 繼續하려고 生覺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1920年代의 北歐의 醫學黃金時代는 찾어 볼 수가 없으며 다만 教授나 研究所의 關係者만이 他國의 研究를 進試하는 現狀維持로 밖에 格別한 進展이 없는 것이 端的의 結論이다. 그러므로 韓國에서도 後進과 研究者들의 士氣昂揚은勿論 學界的 進展과 權威를 위해 仁道로 누구든지 훌륭한 論文을 提出하면 그들에게 學位를 많이 주자는 것이 筆者の 愚見이다.

여기서 韓國醫學의 學制에 關하여 言及하지 않을 수가 없다.

于先 學制를 年制로부터 豫科(2年制)를 設置하는 일 이 있드라도 教科課程을 再整備強化하여 보다 새로운 講座를 新設하자는 것인데 아마 國內有志들도 呼應하고 있다고 본다. 今般 大學整備로 因하여 數個의 醫學學科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醫學界의 舒바른 將來를 위하여 適切한 決斷이었다고 볼수 있으나 附當초 韓國

의 醫學系 大學教育은 절름발이 制度였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수가 없다.勿論 過去의 無秩序한 文教政策의 탓도 있겠으나 醫學學界의 猛省을 促求해야 할 點이 하나 둘이 아니다.勿論 地方大學에 附設된 醫學科의 污濁도 그러려니와 醫學學科를 一個 農科大學內에 附設하였다는 汚點과 前例는 오늘날에 이르러 그 前例의 祭物로써 唯一한 醫學科大學이 農科大學에 吸收된 것은 千萬 不當한 處事이었다.筆者는 世界 어느 先進國家에서도 醫學學科가 一個 農科大學內의 學科로써 存置되어 있는例를 보지 못하였다.大概은 獨立된 單科大學이거나 或은 歐羅巴式 University 안에 있을 때는 神學部나 醫學部같이 醫學學部로 故然히 存立하여 있다. 또한 어느 學部나 單科大學내에 設置할 수가 없는 學科라는 것을 모른다면 이것은 常識以外의 愚論이며 無知의 獨斷이 할수 밖에 없다.왜過去地方大學에서는 醫學科를 單科大學내에 設置하려고 하였으며 그것을 왜 그대로 받아 들였느냐고 問責한았자 이제는 이미 늦었다. 醫學科大學이 水原으로 併合되어 가고 그자리에 數億을 들여서 體育大學을 設置하겠다는 것이 文教方針인것 같다. 醫學科大學이 꾸 서울의 中心街에 있어야 한다고 고집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 만한 施設의 代價는 마땅히 있어야 한다. 무엇때문에 大學整備라는 名分밑에 서울大學校 12個 單科大學中에서 唯獨 醫學科大學을 없었느냐 하는 그 重要한 理由를 찾을 수가 없다.勿論 國家의in 見地에서 그 重要性의 比重이 어대 있다고 저울질하기 前에 經濟開發 五個年計劃에 醫學部分이 第1次產業인 農業分野에 뒷바침 해야 할 重責이 至大하다는 데는 異論이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보다 充實한 施設과 國家의in 施策은 없을 망정 現在의 것 조차 萎縮시킨다면 韓國醫學界는 世界學界의 瓢漏니에서 허덕이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指摘하고 싶은것은 醫學科大學에는 醫科大學程度의 充分한 施設과 보다 많은 講座가 必要하다는 것을 認識해야 하며 그것을 萬一 몇 個의 講義室程度면足한걸로 認識하는 人士가 있다면 이것은 現代版 喜劇으로써는 低級의 品센스가 아닐수 없다.우리는 國家施策에서 決定된 것을 民主制度下의 國民으로써 順應하는 것이 原則이지만 그 잘못을 指摘하여 此後라도 前撤을 밟지 않도록 是正하기를 바랄수는 있다.

歐羅巴의 여러 醫學科大學을 參觀하였는데 그들이 가진 建物과 施設은 驚異스럽다.于先 커다란 圖書館 인데 數萬卷의 舊新刊과 世界各處에서 每日 發刊되는 報告研究誌 그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制限없이 閱覽貸出할수 있는 自由等은 우물안에 개구리格으로 世界學

界의 動向을 물으고 사는 우리로써는 모두 부러운 것이 아닐수 없다. 그리고 最新器具 設備된 16個의 學室과 5個 臨床學室과 각각 그에 附設된 준비차고 깨끗한 入院室과 과찬 患畜 豐富한 實驗動物들! 아래야 工夫가 되고 實驗研究를 할수 있는것이 아니냐고 痛感할 뿐이였다. 그리고 學室에 附設된 19個의 研究室과 巨大한 大學專用 藥局과 博物館等이 있다.

單科大學이지만 政府에서는 Universität의 總長과 같이 總長閣下의 尊稱을 주며 學長이나 校長으로 불리우지는 않는다. 이만큼 그들은 正當한 待遇와 權威를 갖고있다. 그곳 獸醫科大學에는 16名의 正教授와 12名의 外來教授 및 2~3名의 招賓教授가 있으며 45~55名程度의 Assistant가 있고 그밖에도 病舍의 管理者 助手 勞務者 書記 秘書等 80~100名의 食口가 달려 있다.

歐羅巴의 教授들은 自己學室에 적어도 3~6名程度의 Assistant를 週서 自己研究와 講義 및 實習等을 補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들 Assistant는 主要한 大學의 一員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120~250弗 程度의 報酬를 每月 받고 있으며 學生들의 出缺席을 署名해 주는 特權을 가지며 (署名回數가 적으면 試驗時 無資格)教授가 有故時 代講도 시키며 診察治療는 勿論 實習은 大概 이들에 의해서 實施된다. 그들의 權限이란相當하다. 勿論 이 Assistant의 藏權도 技術分野에서만 特存하고 一般 文科系統의 Assistant는 數도 적지만 藏權도 稀微하다.

아마 Assistant를 處待하는 國家는 韓國뿐이 아닌가 한다. 醫科大學이나 獸醫科大學을 莫論하고 月 10, 000HW에서 15, 000HW 程度의 車馬費인지 月給인지 알수 없는 것을 주면서 마구 부려먹는 奇現象은 차마 看過할수 없는 惡習中의 하나이다. 이것은 人權蹂躪의 모델케스中의 하나이다. 아무리 國家豫算이 적다고 해도 Assistant의 制度가 있는 만큼 正當한 人間待遇를 하여줘야 할것이다. 그들이 將來 이 祖國의 學界를 걸며 질 科學者이며 世界學界와 競爭할 우리祖國의 碇石이며 役軍들이 아니겠는가. 그들 Assistant를 속에서 장차 Novel賞을 탈 者가 있을런지 누가 알겠는가 말이다. 革命政府에서는 大體로 上厚下薄의 原則下에 3月부터 軍人과 公務員들의 俸給이 引上된다. 滿足할만한 것은 아니라도 國公立大學의 教授들도 應分의 引上이企圖되었으나 Assistant의 對策은 아예 考慮되지 않았다.

大學은 教授와 學生만으로 構成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大學社會의 嚁堅은 教授인것이 事實이나 教授는

有能한 Assistant 없이 새로운 分野를 開拓研究하기에는 苦役中의 苦役이며 時間虛費밖에 所得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歐美에서는 Assistant라는 存在가相當히 貴重한 有在로써 大學에서는 教授다음의 特特를 받고 있다. 韓國에서도 이와 같은 價例가 大學속에 자리잡게 되어야 優秀한 論文과 著書와 研究發表도 있을것이며 世界學會에 내어 놀만한 Report라도 나을 것으로 믿는다.

다음으로 歐羅巴 獸醫師들의 하루의 生活을 斷片의 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실상 歐羅巴 獸醫師들이 潤澤하여진 直接的인 原因은 世界第二次大戰以後부터 急進으로 普及된 人工受精의 德分이다. 諸威國의 首都에서 350km나 北쪽으로 떨어진 1個 農村地區의 獸醫師인 Nordrum氏와 하루를 같이 지낸 일이 있다. 아침 8時에 아침 커피를 듣다. 簡單한 食事が 끝나면大概는 그때부터 電話가 各農場으로부터 걸려온다. 婦人은 男便이 新聞을 보는 동안 電話を 받고 메모를 하여둔다. 急한 治療나 應急手術이나 產科分野가 아니면 9時頃부터 器具를 車에 싣고 떠난다. 婦人이 메모해준 것을 보면서 第一 가까운 農場으로부터 車를 몰고 간다. 農場에 到着하면 主人이던지 主人婦人이 나와서 반겨준다. 그리고 곧 畜舍로 引導하면 곧 洗水하도록準備하여 준다. 患畜의 病歷이나 告警를 들으면서 診察한다. 그리고 藥物投與나 注射를 하여 治療한 후 主人에게 管理나 飼料에 對한 注意를 준다. 治療가 끝나면 여러가지 農場經營이나 管理, 衛生 其他 問題까지 相談한다. 實際에 있어서 歐羅巴의 獸醫師들은 그들이 處한 地域社會에서 牧師나 神父가 精神的인 指導者라고 하면 獸醫師들은 經濟的인 指導者라는 것이 公認되다 싶이 되어 있다. 그와 같이 그들은 高等教育을 받았고 다른 分野보다 많이 大學生活을 하였기 때문에 感識하며 紳士이고 農民들로부터 德望이 높은 人格을 所有하고 있는 것이다. 應接室에 가서 Coffee를 마시며 菓子接待을 받으며 治療代를 現札로 받는다. 外上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 丁抹에서는 月未支出을 約束하는 農場도 있으나 大概는 現金支拂이 原則이다. 領收證을 써 주고 집에다 電話を 한다. 그러면 午前中에 들일 곳을 豫定하여 다음 農場으로 간다. 때로는 人工受精도 하고 手術도 하고 이 農場 저 農場으로 다니면서 午前동안 治療豫定이 끝나고 餘裕가 있는데면 집으로 돌아와서 點心을 먹고 다음 連絡이 있는 곳으로 車를 몰고 간다. 時急한 患畜이 있을때는 點心을 하려고 집에 까지 갈 滯裕는 없다. 大概 患畜이란 乳牛와 豚뿐이다. 患犬은 都市에나 있고 農村에서는 取扱되는例

가稀少하다. 午後도 車를 물고 이農場 저農場 다니면서 治療를 한다. 勿論 電話連絡이 없는 農場에는 들릴 餘暇도 없다. 저녁까지 治療를 하고 돌아오면 저녁食事を 하고 TV를 즐기던가 家族과 함께 劇場求景이나 갔다 온다. 勿論 夜間이라도 產科手術을 要하는 應急患畜이 있으면 어느때라도 車를 물고 달려 가야 하며 治療를 拒絶할수는 없는 것이다. 大體로 日曜일만은 農場에서 꼭 應急治療가 緊要한것 외는 獸醫師가 休息하도록 내버려 둔다. 間或은 갓 獸醫師가 된 新兵들이 實習나와 있으면 夜間이나 日曜日治療를 시킨다. 그들이 平均 日當收入은 藥物代 精液代 挥發油代를 除하고 純收入만도 20~50\$ 까지 오를때도 있다. 平均 25~30 \$은 될것이다. 그러므로 每月 800~900\$이 되는 셈이다. 歐羅巴에서 月 900\$의 收入이 있으면 그것은 美國에서 1500\$을 버는 것 보다 使用價値가 크다. 韓國獸醫師는 底到底 生覺조차 못 하는 收入들이다. 그러므로 自己네를 教授보다 實收入이 많은것이 事實이며 教授는 自家用車를 못 가지도 新兵獸醫師들은 누구든 지 곧 自家用車를 갖게 된다. 獸醫師치고 自家用이 없는 者는 年老한 教授級外는 없어 보인다. 大概 年老한 教授들은自身들이 運轉하기가 危險함으로 좀처럼 自家用을 갖지않으며 오히려 Assistant들의 신세를 지고 있다. 筆者는 北歐에서 工夫하면서 다음과 같은 한 가지의 結論을 내렸다. 即 獸醫師가 致富하고 醫師와 牽護士가 致富할 길이 없는 國家나 地域社會는 正當한 社會保障制度가 發達된 民主主義 國家라는 것을 認識하였다기 때문이다. 筆者는 이와 같은 國家에서 教育도 받아 봤고 實地로 그들과 生活하여 보았기 때문에 韓國의 富強하려는 氣氛는 위에 말한 風習이 돌아와야 할 것이다. 韓國에서는 不可能할것인가? 우리는 斷念하기에는 너무도 愚昧한 卑屈이다. 例를 들면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이 順調로 히進行만 된다면 農產은日益進展할것이요 家畜頭數는 全人口의 머리수를凌駕하도록 되고 外貨獲得이增加되어 重畜農業으로써 國民生產高에 肥大한 比重을 갖게 될때도 올것이다. 失業者가 줄어 들고 犯罪率이 減少되면 自然이 牽護士는 致富할 길이 없어지게 되며 國民生產高가增加됨에 따라서 國民이 一人當 每月 50圓乃至 100圓의 保健保險料를 支拂한다고 하자. 國民全體人口가 2000萬名이면 每月 50圓式내면 10億圓이 되고 每月 100圓式을 支拂하면 每月 20億이라는 金額이 들어 온다. 國家는 政府豫算을 重點적으로 利用하여 各郡에 하나씩 綜合病院을 設立한다. 每月 10億乃至 20億의 費金으로 全國 140乃個至 180個의 綜合病院을 運用해 나간다. 醫師는 高俸으로 待

遇하고도 全國에서 나타나는 患者를 無料診療할수가 있을 게다. 手術費나 入院契約金이 없기 때문에 貴重한 人命이 저 세상으로 가는 따위의 所謂 現實社會의 悲劇은 終結될것이며 醫師도 仁術하는 先生으로서 國民으로부터 尊敬받는 社會가 될 것이다. 丁抹國民은 每月 1.40弗 即 韓貨로 1720圓程度를 支拂하고 있다. 萬一 韓國國民이 每月 1700圓을 放捨하고 100圓式만 낸다면 各面마다 綜合病院을 세워도豫算이 남을 것이다. 그러나 國民所得이 적은 우리 形便으로는 모든 國民이 그렇게 多額을 支拂하지는 못 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形便이 둘고 景氣가 回復되면 國民一人當 100圓程度의 支拂은 可能하다고 본다. 이러한 것이 實現될 날이 決코 올것이다.

韓國獸醫師들이 할 일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러한 自己義務를 다 하려고 하면 하루에 5時間以上 잠자면서는 可能하지 않다. 于先 實力を 培養하고 名實共히 農村社會의 經濟的 指導者를 培養할 만한 人格이 되어야 한다.

義務와 權利를 올바르게認識하지 못하고 權利만 行使하려는 獸醫師가 있느냐! 當身은 可憐한 親友오!義務도 權利도 다 所用없다는 個人主義的 獸醫師가 있느냐! 當身은 차라리 獸醫師가 않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獸醫師會는 法的으로 獸醫師로서 構成되니 만큼 모든 獸醫師는 全員會員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權利를 主張하기 前에 會費나 獸醫師法規를 遵守하여야 하는義務를 實行할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民主制度의 가장 基礎常識의 하나인데 이것조차 實踐할수 없는 獸醫師는 實相 農村의 經濟的인 指導者는커녕 獸醫師가 될 資格조차 없는 것이다며 따라서 民主主義體制下에서 生을 賽爲할 國民이 될수 없는 것이다. 韓國의 悲劇은 이民主制度의 教育이 上下를 英論하고 誤認되고 個人主義化된 때문이다. 勤勞의 代價로서 金錢을貯蓄하려는 生覺보다는 어떤 手段이든지 一獲千金하려는 惡毒素가 이 國民의 血管속에 脈膊치는限 우리는 希望이 없다. 먼저 韓國獸醫師는 이와 같은 毒素와 虛榮을 없애고 崇高한 人品을 具備하여 무엇이든創造하려는 努力가들이 되어야 할것으로 원하고 싶다. 우리는 決코 藝術的인 鄉愁나 絶望으로 前進하려는 行軍을 中止시킬수는 없다. 獸美의 獸醫師들이 올바른 生을 賽爲하듯이 韓國獸醫師들도 우리 當代에 안되면 後進들을 위해서라도 오늘의 課題를 내일로 延期하려는 舊習을 버리고 最善의 길을 힘차게 걸어야 한다. 韓國農村의 구석 구석에서 幸運의 금방을 휘둘은 者는 누굴까? 그

(39頁하단 계속)

3) 本劑量 使用하여 毒性이 있어 消化障礙을 일으키는 點은 治療途中 보지 못하였다.

4) 都市 農村에 犬의 毛囊虫症이 蔓延하여 奮主 및 獸醫師들의 頑痛끼리를 것을 短期日內에 治療할수 있으니 赤裸로되는 개가 없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本試驗에 있어 患畜을 提出하여 주신 李丙祥氏 金好伸氏와 또 藥品製造에 많이 지도 하여주신 工大 申允鄉教授에게 裏心으로 謝意를 表示하는 바입니다.

## X. 參考文獻

- 1) Brumley; Diseases of The Small Domestic

### Animals 1950

- 2) Kirk; Index of Treatment Small animal Practice 2nd Edition, 1951
- 3) Lapage; Veterinary Parasitology 1956
- 4) American Vet. Publication, INC.; Canine Medicine Second Edition, 1959
- 5) Sanger; ET-57 (Trolene) for Demodectic Mange. T.V.M.A Jan. 15. 1958. P56
- 6) 板垣: 家畜寄生虫病學
- 7) 山下: 家畜寄生虫病學
- 8) 板垣: 家畜内科診療醫典

(64頁하단 계속)

것은 獸醫師들이어야 한다. 이것이 獸醫師들이 전 最上의 進路요 指標이며 終焉驛이 아닐수 없다.

筆者는 丁抹國民의 崇高한 精神가운데서 다음과 같은點을 提起한다. 即 丁抹의 王家나 貴族社會로부터 農民이나 勞動者의 家族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每日같이 그들의 食卓에 맛있는 검은빵을 내어 놓는다. 그것은 그들 祖上이 貧困할때 먹는 검은빵이므로 그것을 記念하기 위하여 일부터 한 두쪽의 검은빵부터 먼저 집어서 먹고 난후 하이얀 빵을 드는것을 禮儀로 알고 있다. 全國民이 다 같이 검은빵을 먹지 않아도 될 만

그들의 生活은 裕福하다. 그러나 그들은 이慣例를 위로는 王家로부터 上下貴賤의 差別없이 傳統的으로 實踐하고 있다. 그것은 그 國民이 갖고 있는 훌륭한 哲學이다. 우리는 國民精神에 哲學이라는 두글짜가缺되어 있다. 이것 부터가 그들보다 우리가 貧困하다證據이며 應當한 歸結일수 밖에 없다.

歐美的 獸醫學界가 黃金時代를 누리는 동안 韓國獸醫界는 아직도 貧困과 經濱에서 脱免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多幸히 韓國獸醫界가 今年부터 失職이라는 두글짜만이라도 除去되었으니 千萬多幸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歐美的 獸醫學界를 따라가려면 다음박질하며 休息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제 當身은 韓國獸醫學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는 意慾이 있으십니까? 이와 같은 質問은 우리 學界의 뜻있는 분들의 共通된 自我質問이 아닐수 없다.

宇宙의 公轉이停止되지 않고 運行되는限 韓國獸醫界에도 曙光이 빛일날은 그다지 멀지는 않다. 그 驚異스러운 業績은 獸醫師들自身들의 双肩에 달겨진 祖國의 繁榮이라는 荷物을 올바르게 걸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進路를 向해 行軍하는 발자국의 點과 點들을 이은 線들에 의해서 祖國의 歷史속에 길이 彫刻될 것이다.

各種印刷  
圖書出版 鮮光印刷株式會社

代表 金 是 達

서울特別市鍾路區公平洞五五

電 話 { ③ 3933  
                  ③ 5000